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65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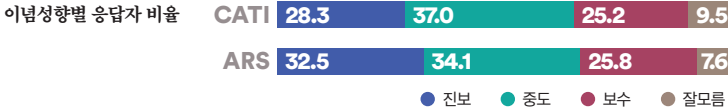
제80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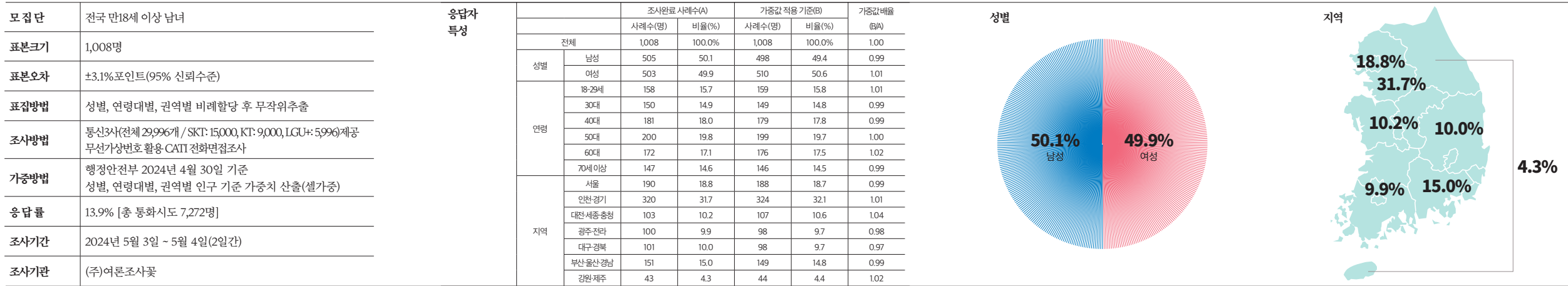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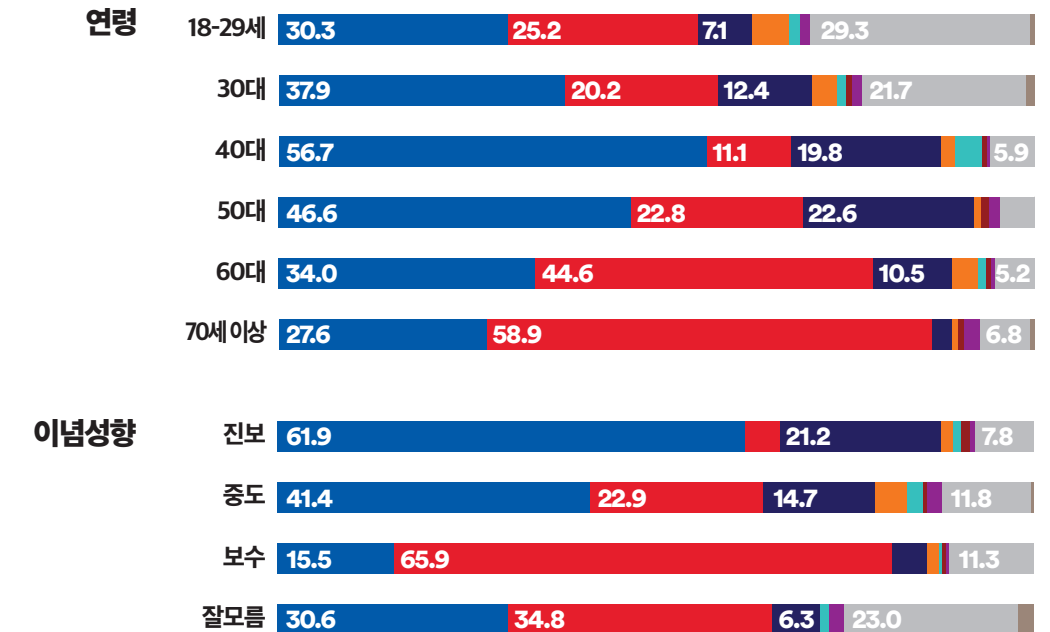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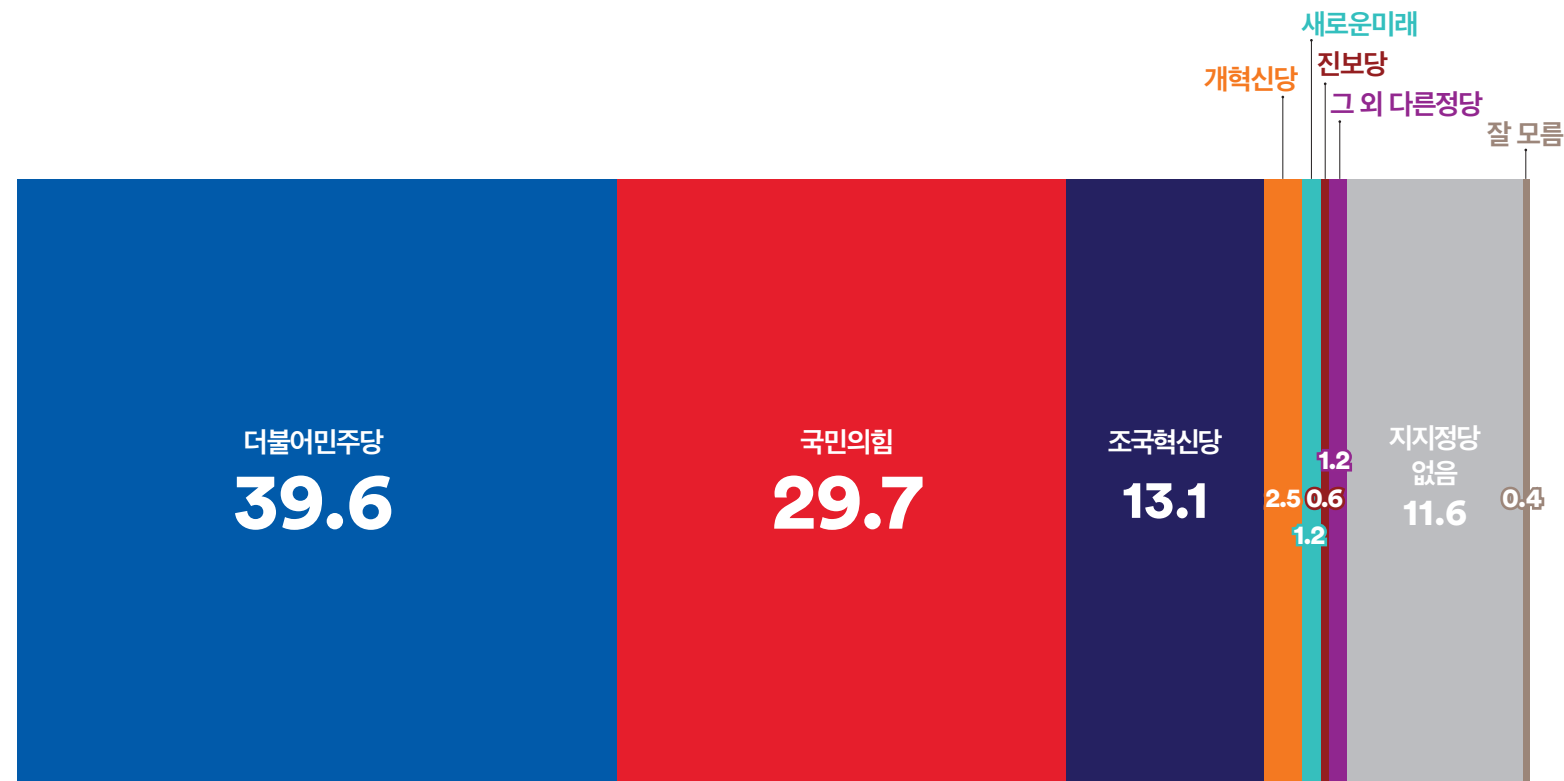
WWW.FLOWERRESEARCH.COM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원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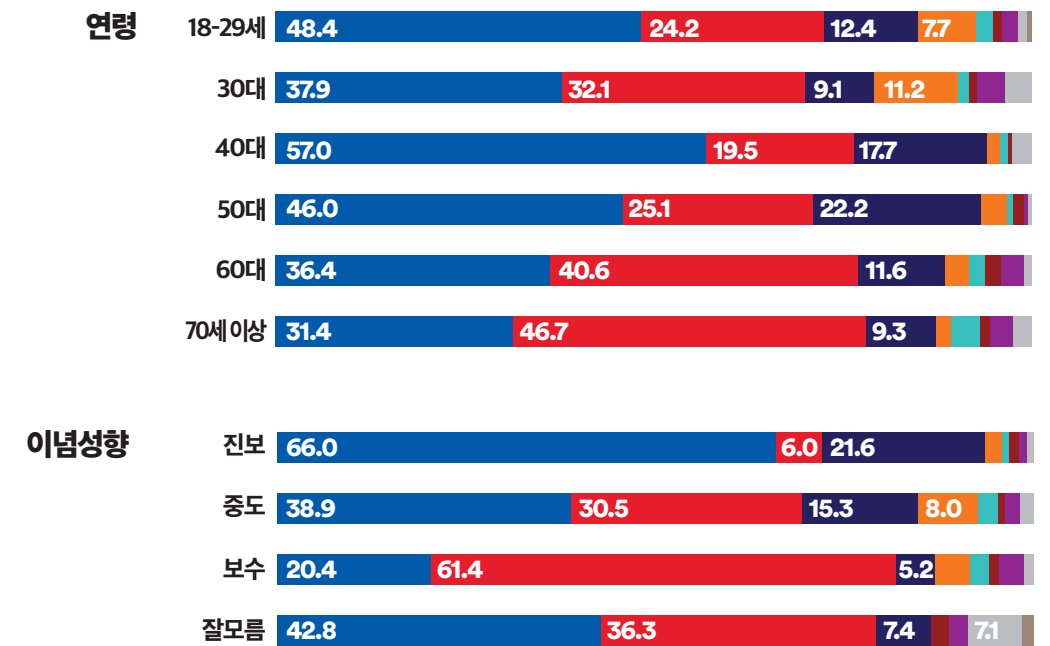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를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하며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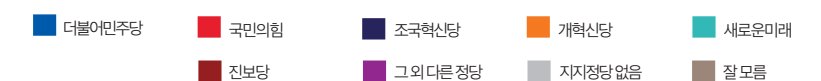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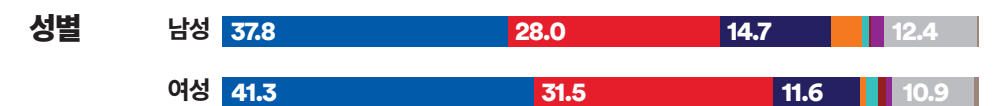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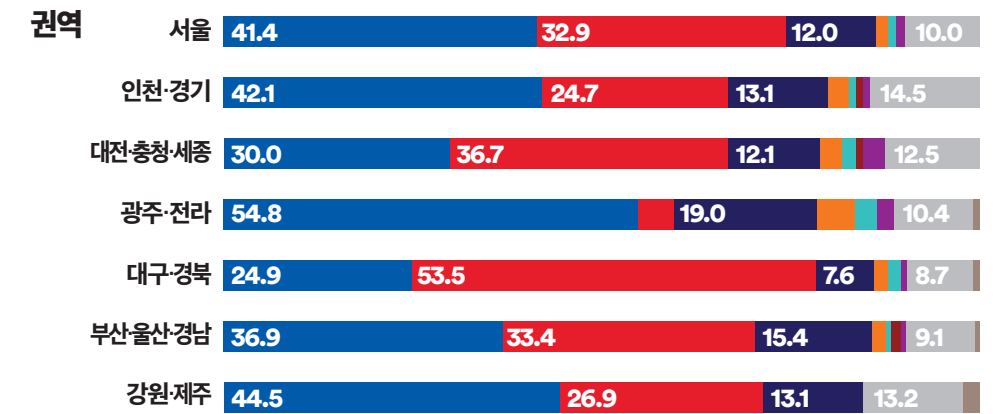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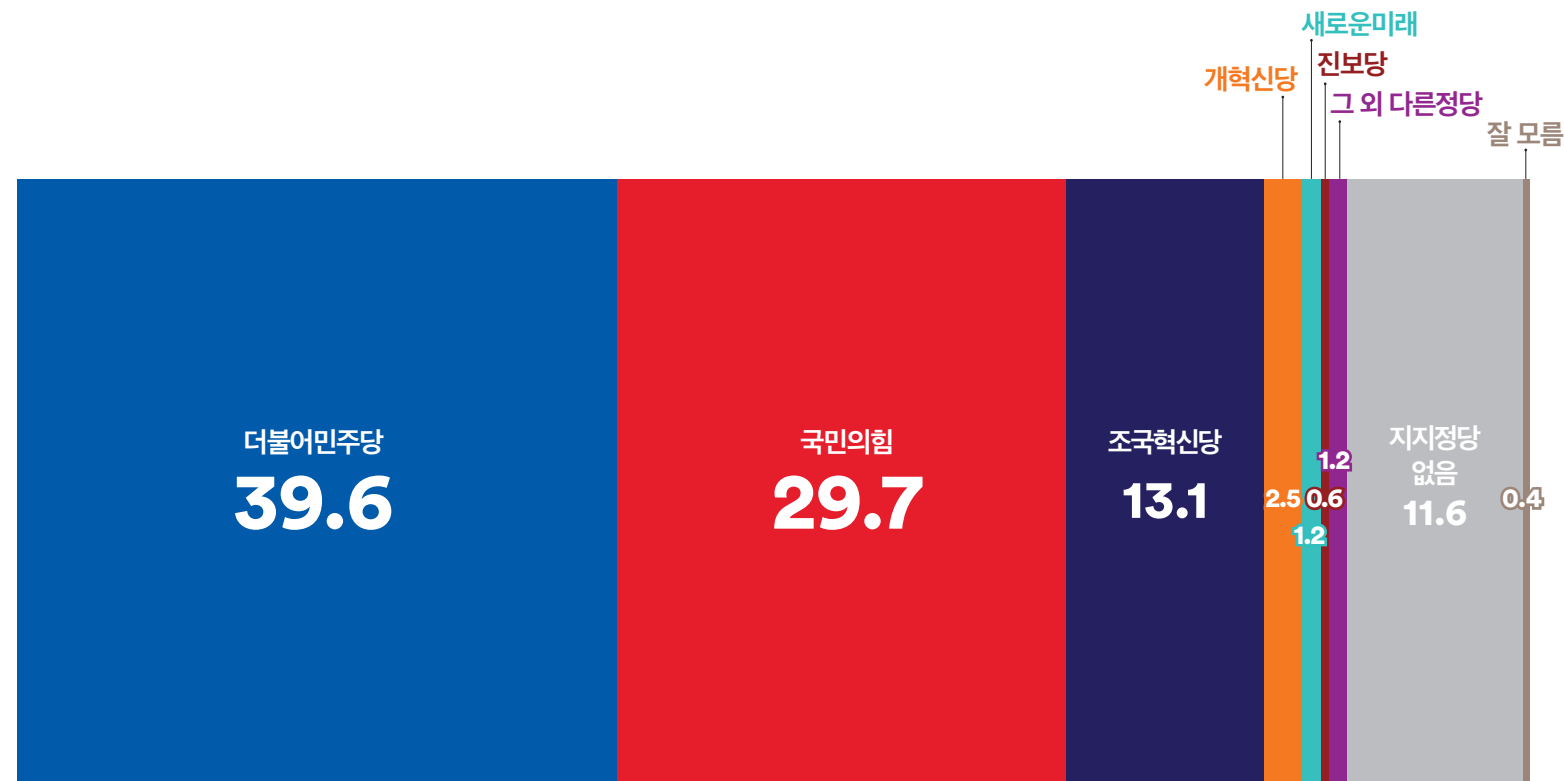


79차 ARS조사, 64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 '조국혁신당'은 2%p 정도 하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국민의힘'을 20%p 이상의 차로 앞섬(격차: CATI 23.0%p, ARS 26.6%p)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3.2%p(64차: 33.6%p), ARS 23.7%p(79차: 29.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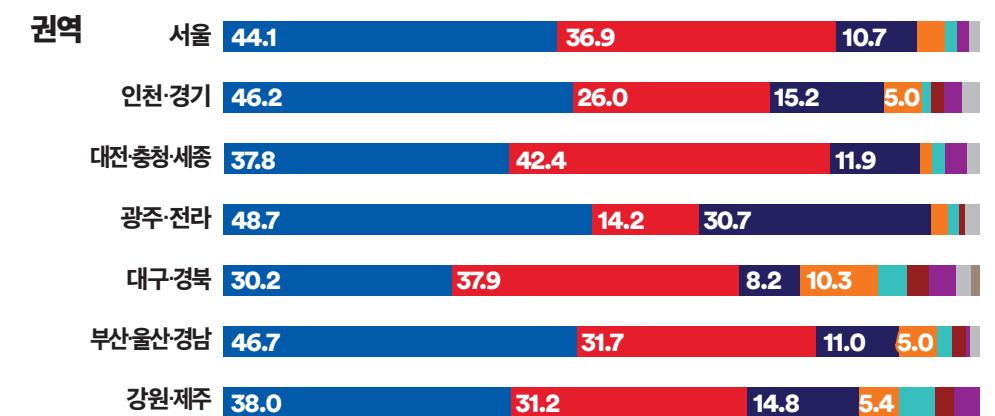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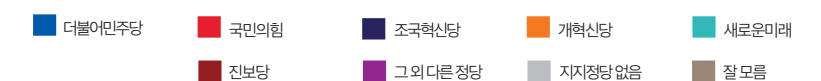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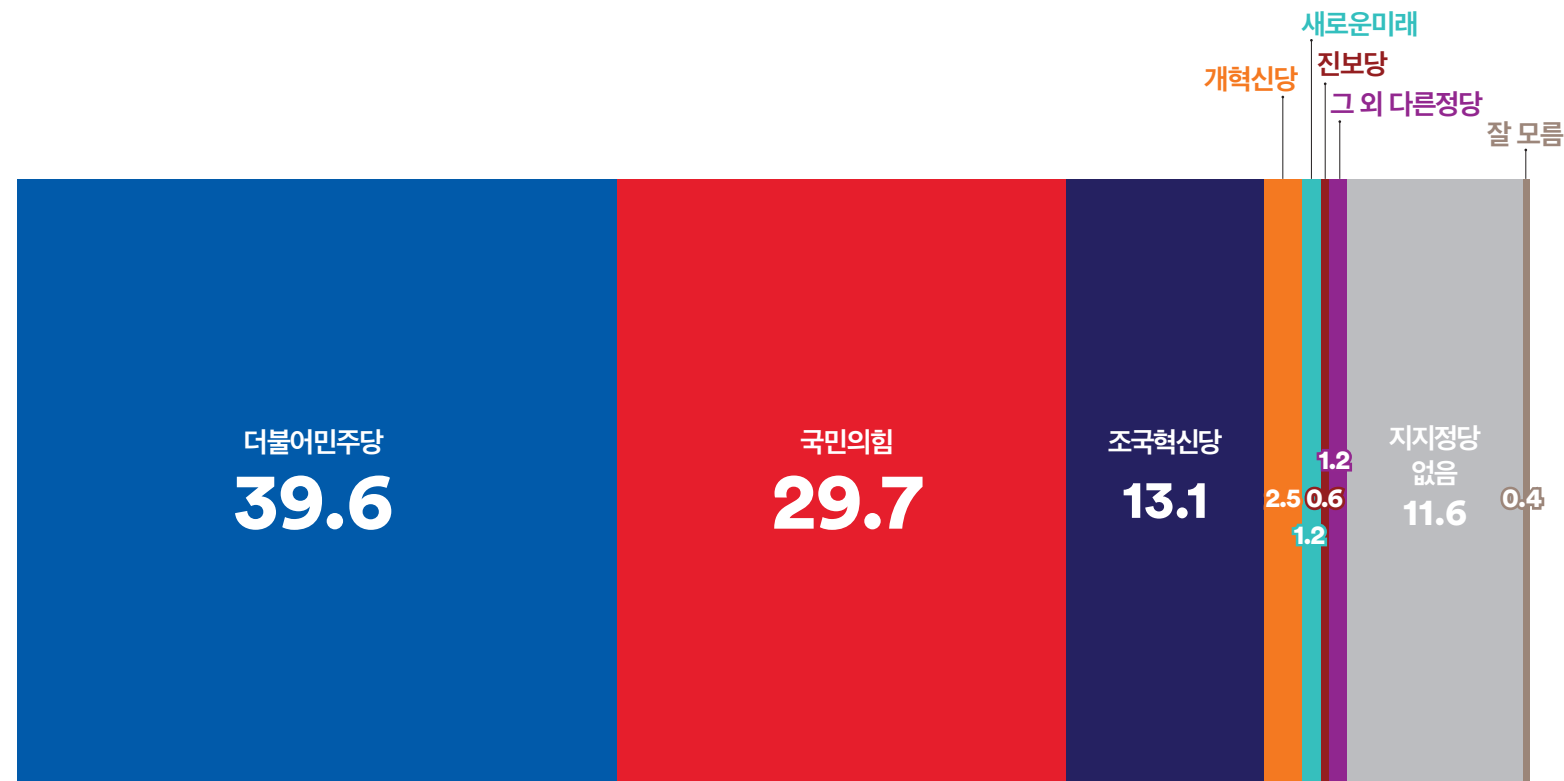


79차 ARS조사, 64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 '조국혁신당'은 2%p 정도 하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국민의힘'을 20%p 이상의 차로 앞섬(격차: CATI 23.0%p, ARS 26.6%p)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3.2%p(64차: 33.6%p), ARS 23.7%p(79차: 29.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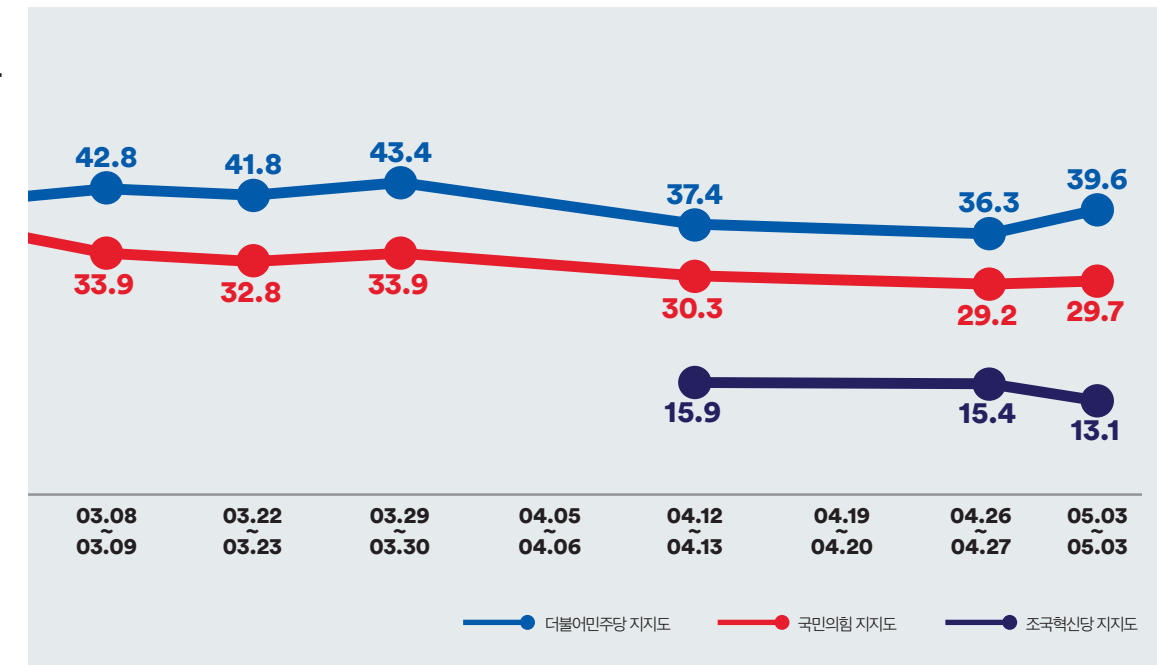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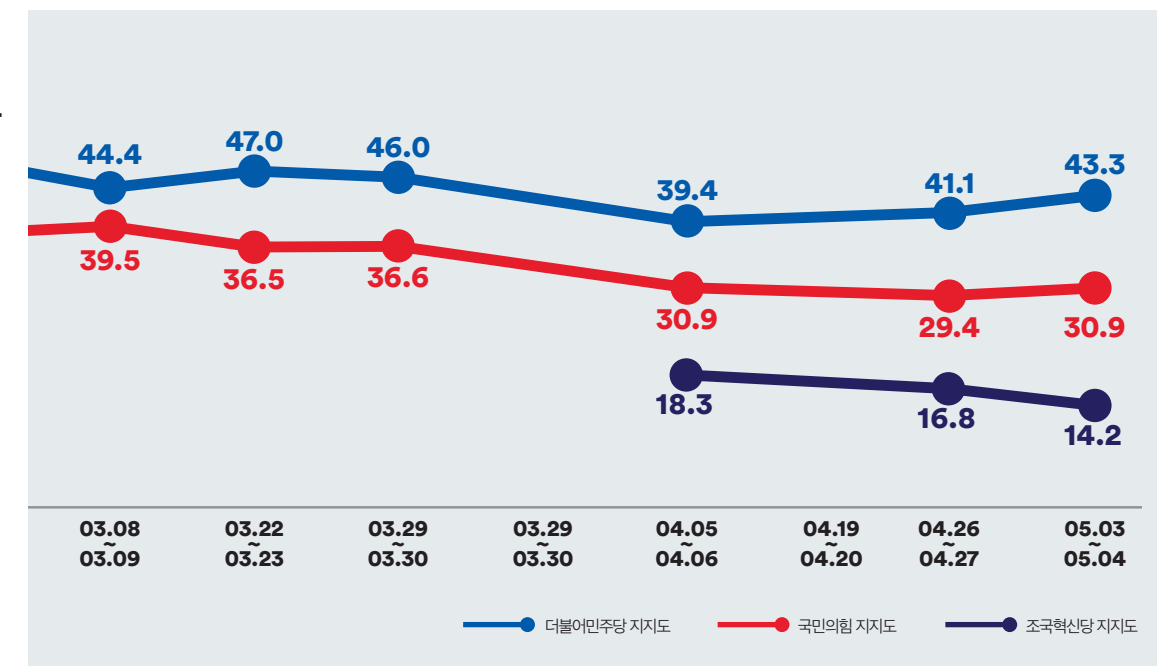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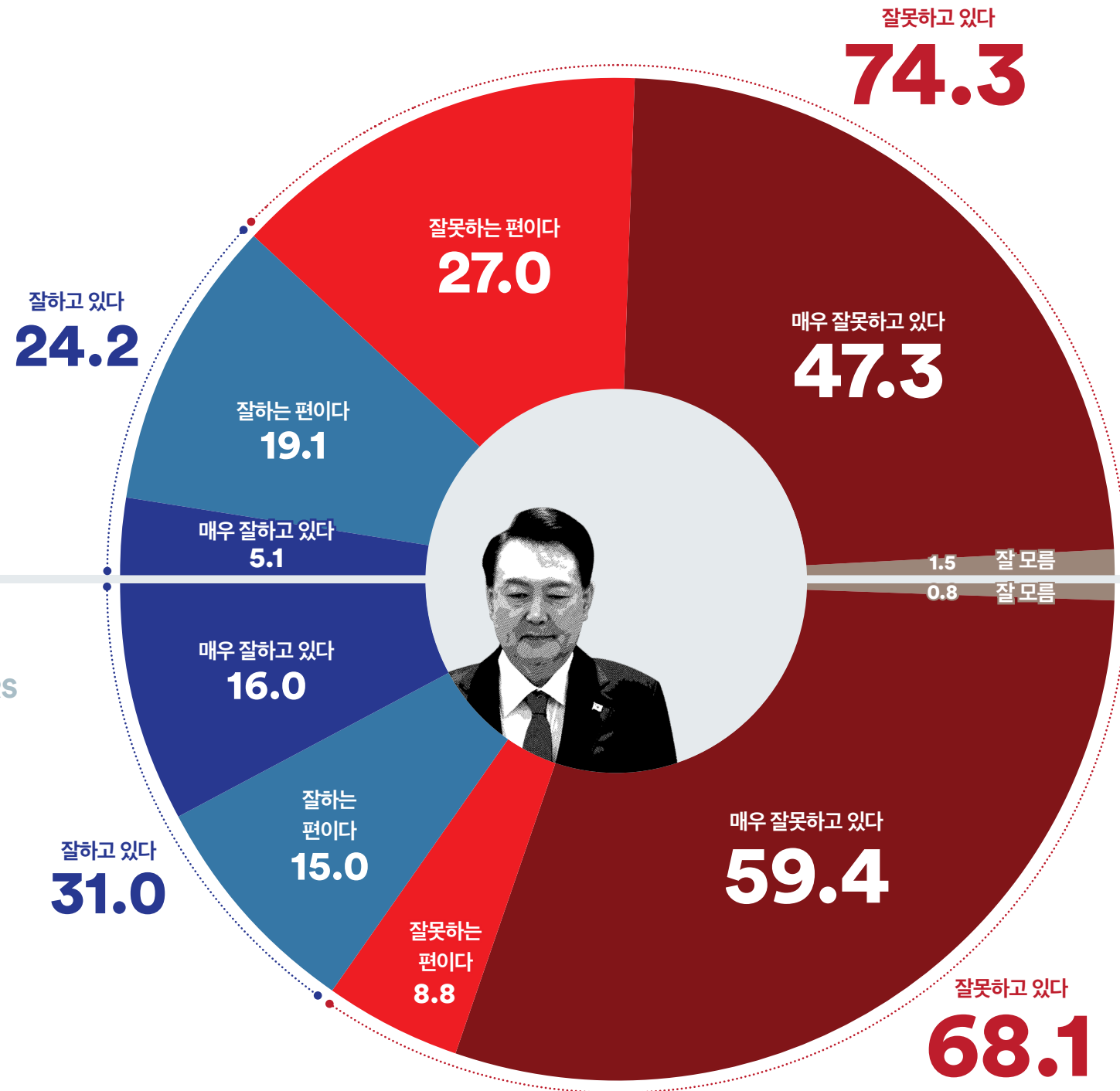


79차 ARS조사, 64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 '조국혁신당'은 2%p 정도 하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국민의힘'을 20%p 이상의 차로 앞섬(격차: CATI 23.0%p, ARS 26.6%p)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3.2%p(64차: 33.6%p), ARS 23.7%p(79차: 29.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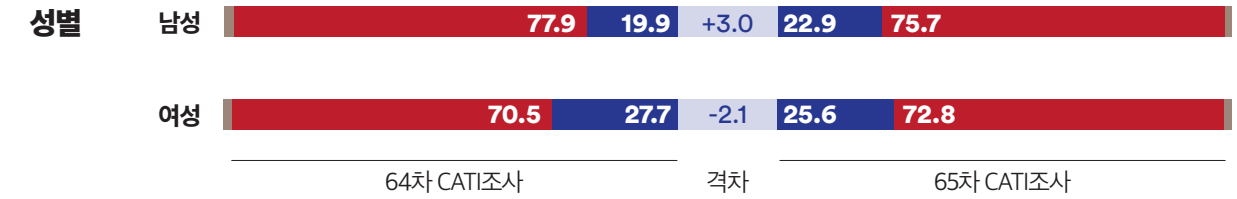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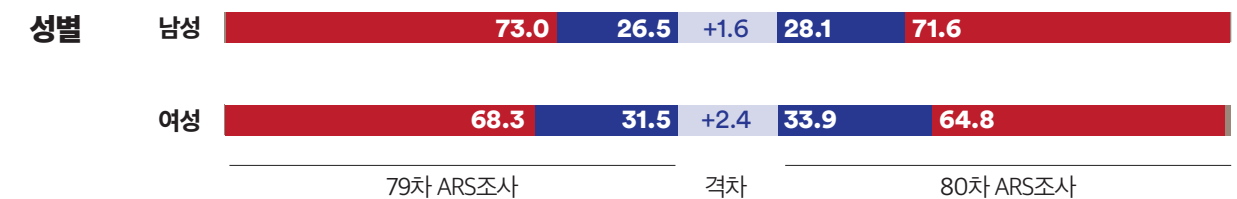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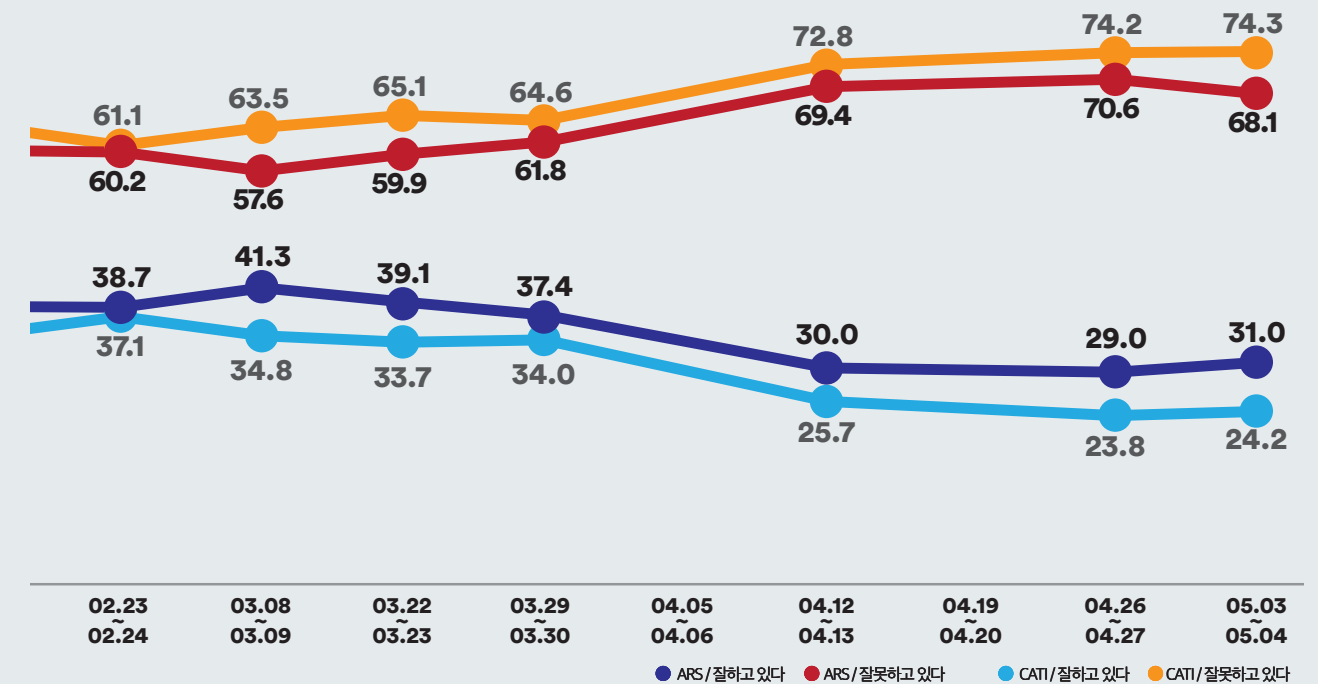
CATI



지난 64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0.4%p 상승, '부정' 평가 0.1%p 상승(격차 50.1%p)
 지난 79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2.0%p 상승, '부정' 평가 2.5%p 하락(격차 37.1%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65.9%p(지난 조사: 65.3%p), ARS 44.3%p(지난 조사: 4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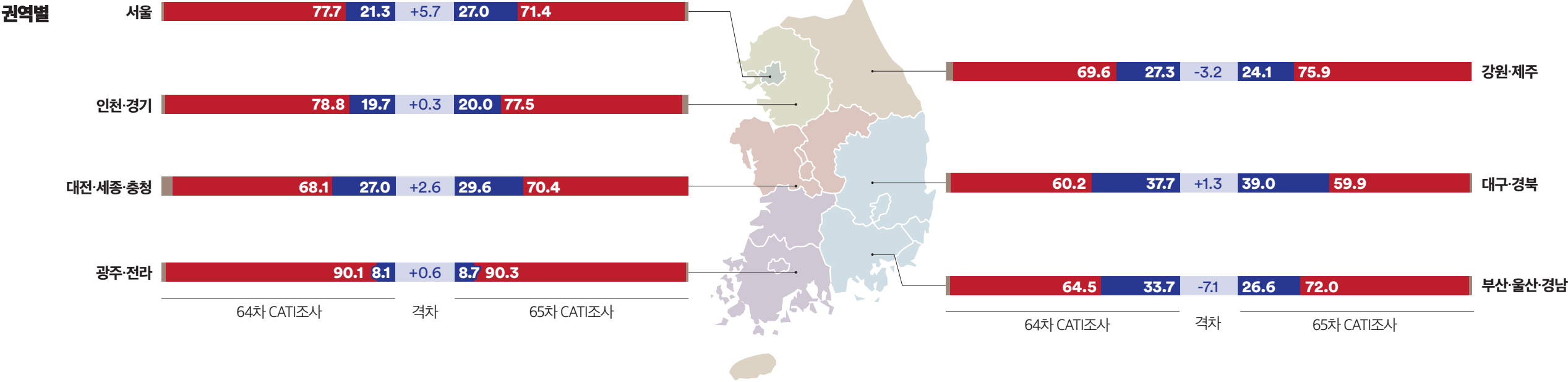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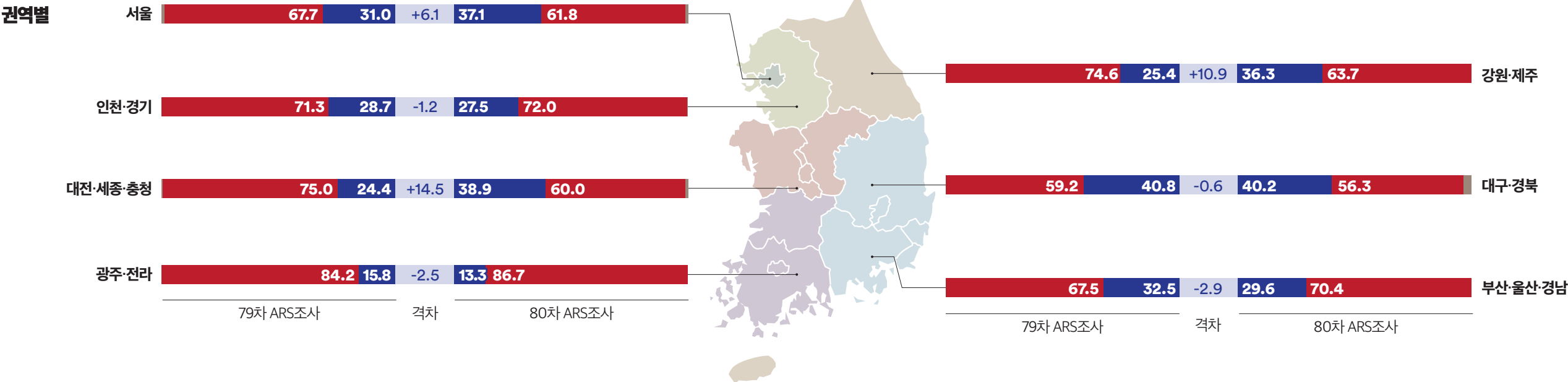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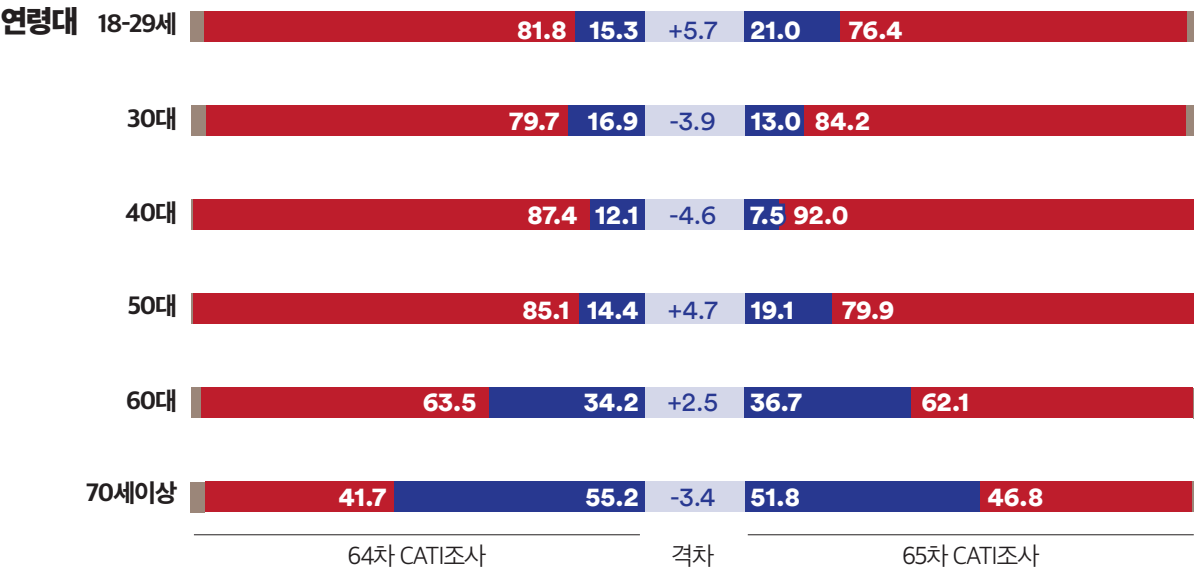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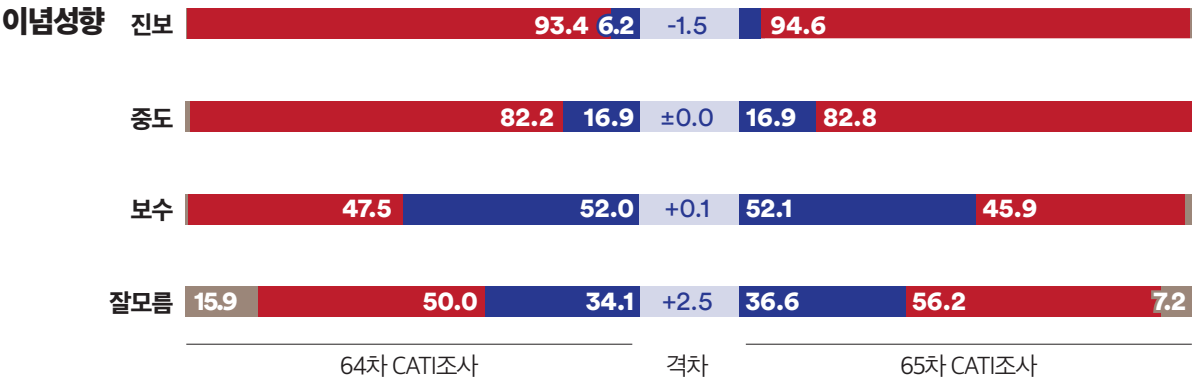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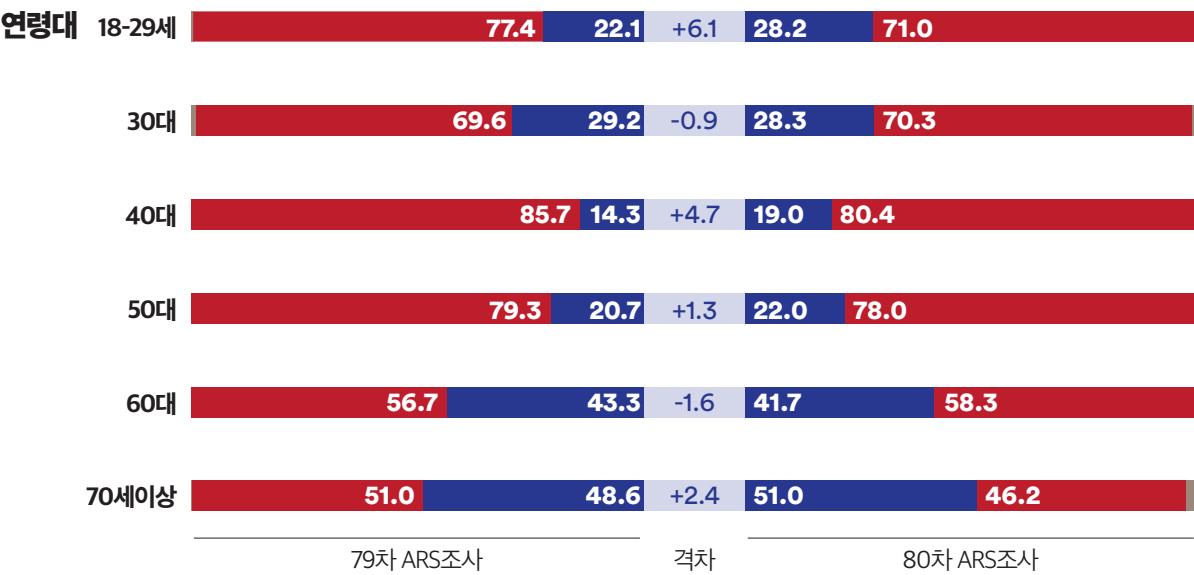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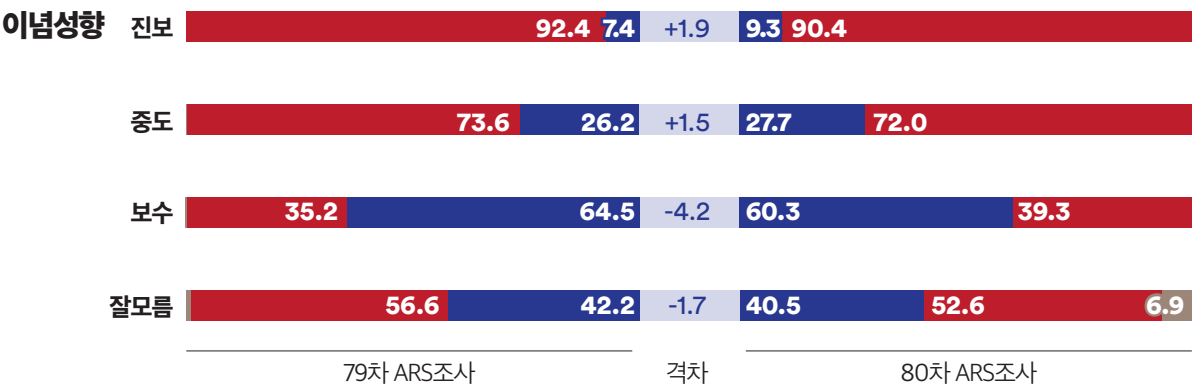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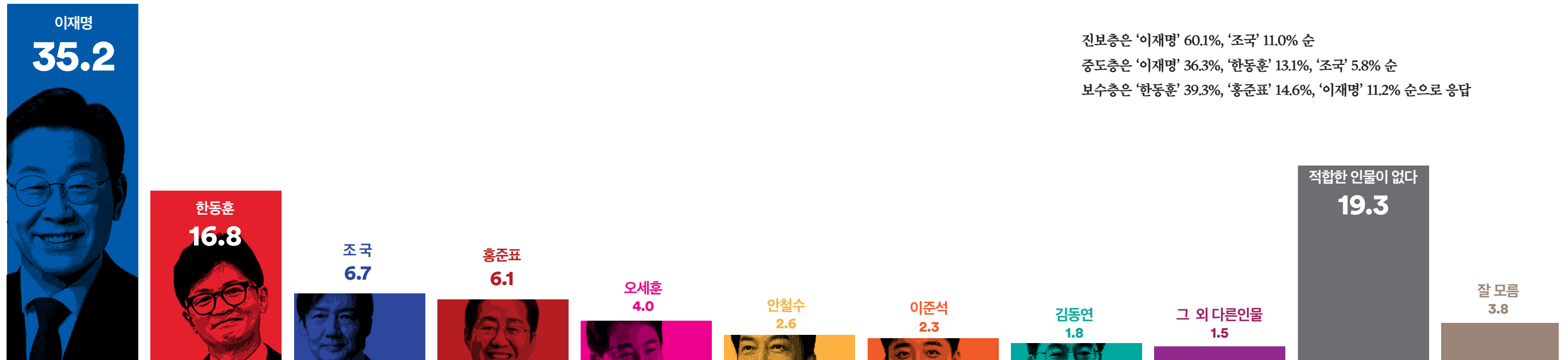
ARS



이재명 한동훈 조국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김동연 그 외 다른 인물 적합한 인물 없음 잘 모름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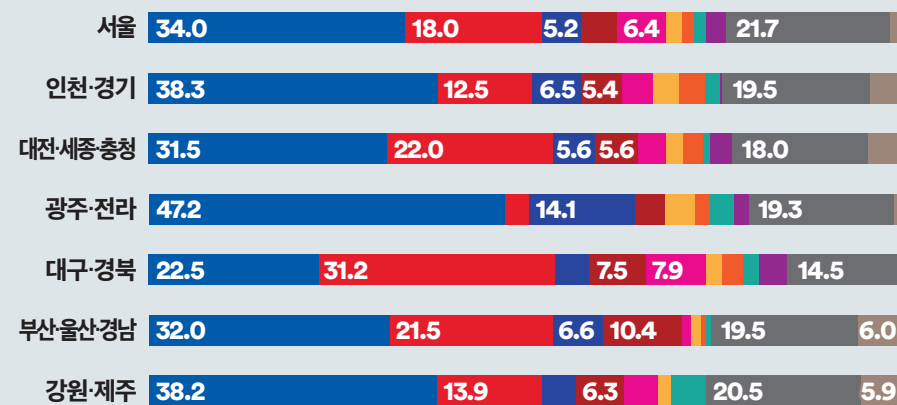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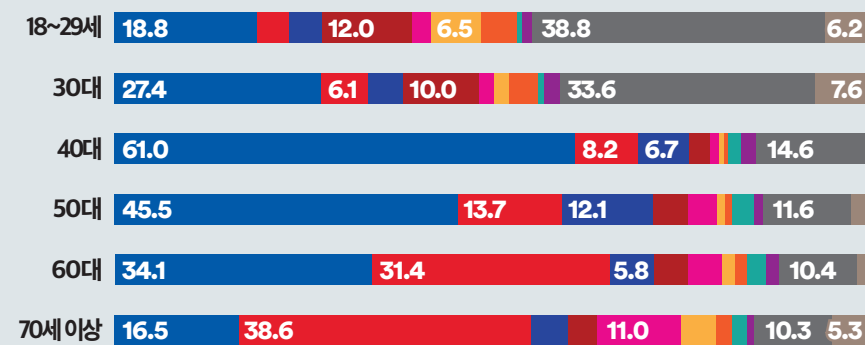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66.8%, ‘조국’ 6.8%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1.8%, ‘홍준표’ 12.7%, ‘오세훈’ 11.3%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0.7%, ‘조국’ 27.4%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60.1%, ‘조국’ 11.0% 순
중도층은 ‘이재명’ 36.3%, ‘한동훈’ 13.1%, ‘조국’ 5.8% 순
보수층은 ‘한동훈’ 39.3%, ‘홍준표’ 14.6%, ‘이재명’ 11.2%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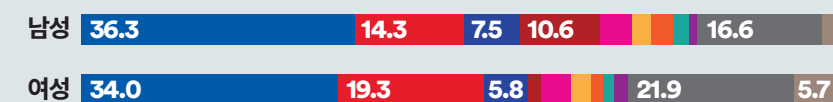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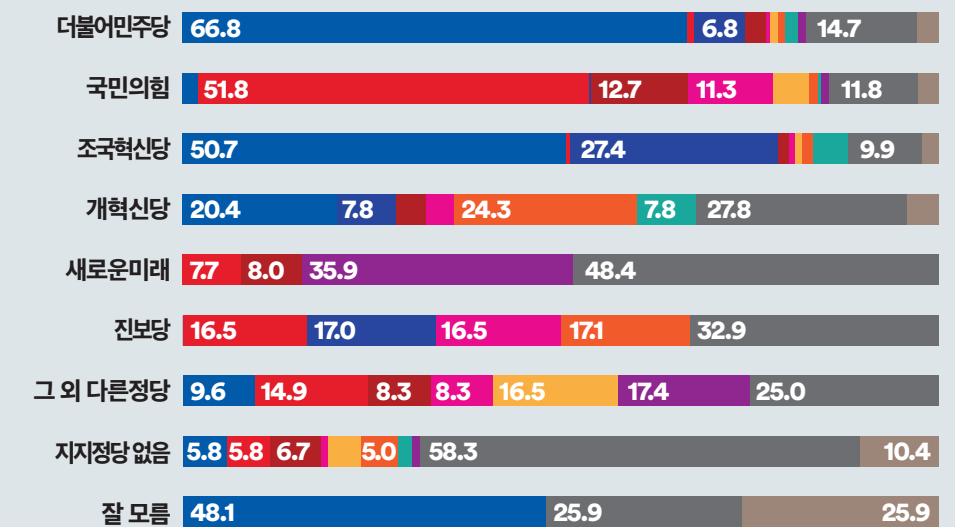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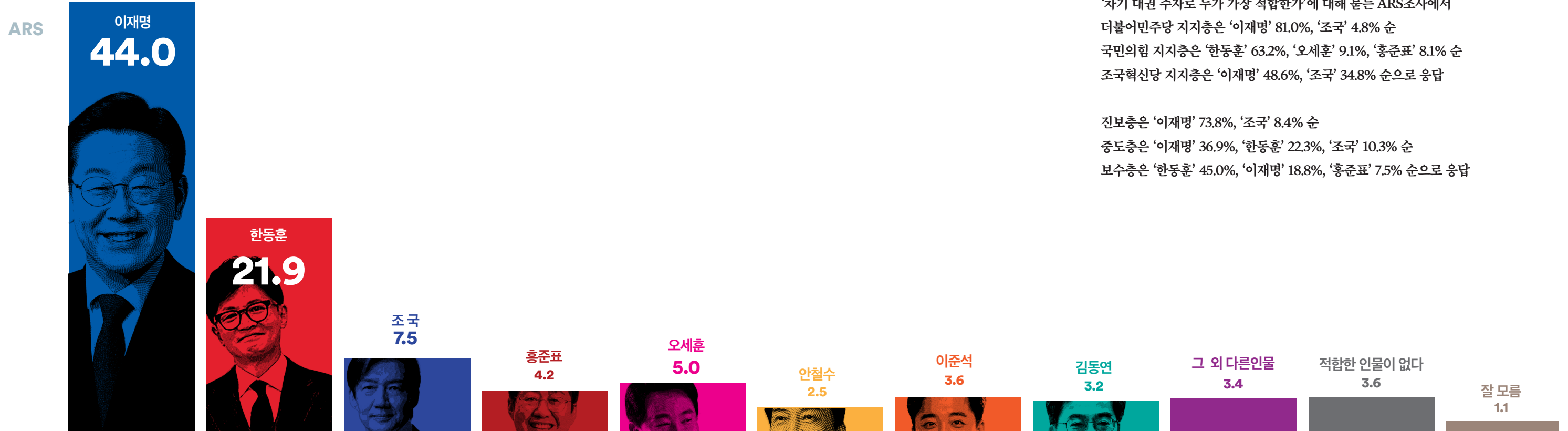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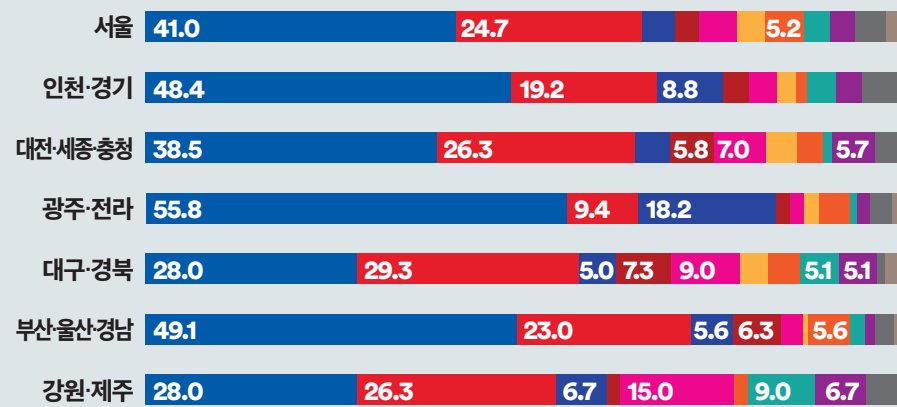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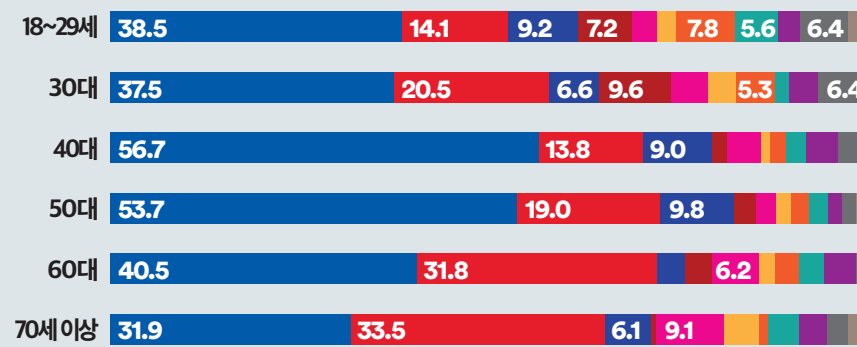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1.0%, ‘조국’ 4.8%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63.2%, ‘오세훈’ 9.1%, ‘홍준표’ 8.1%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8.6%, ‘조국’ 34.8%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3.8%, ‘조국’ 8.4% 순
중도층은 ‘이재명’ 36.9%, ‘한동훈’ 22.3%, ‘조국’ 10.3% 순
보수층은 ‘한동훈’ 45.0%, ‘이재명’ 18.8%, ‘홍준표’ 7.5%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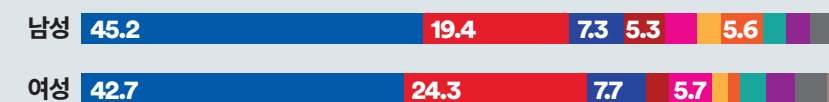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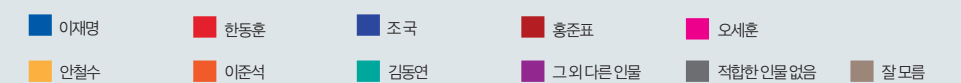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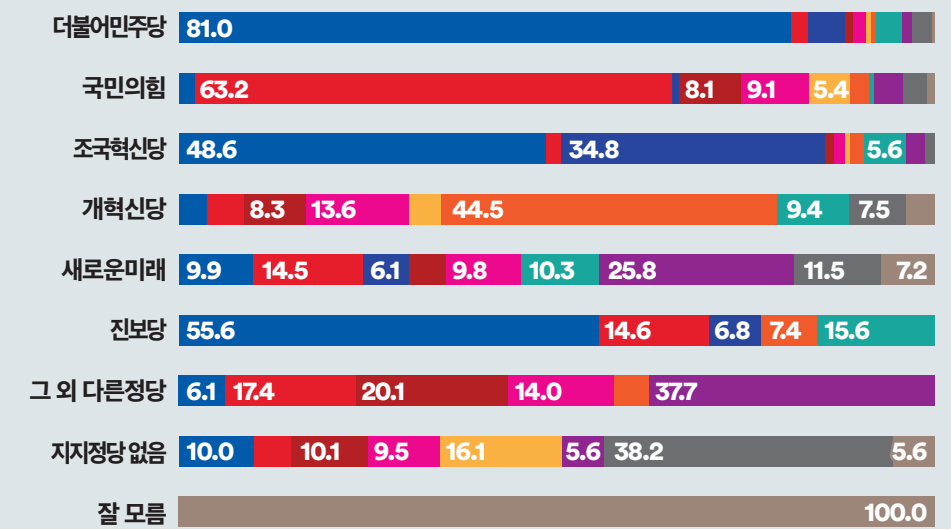
연령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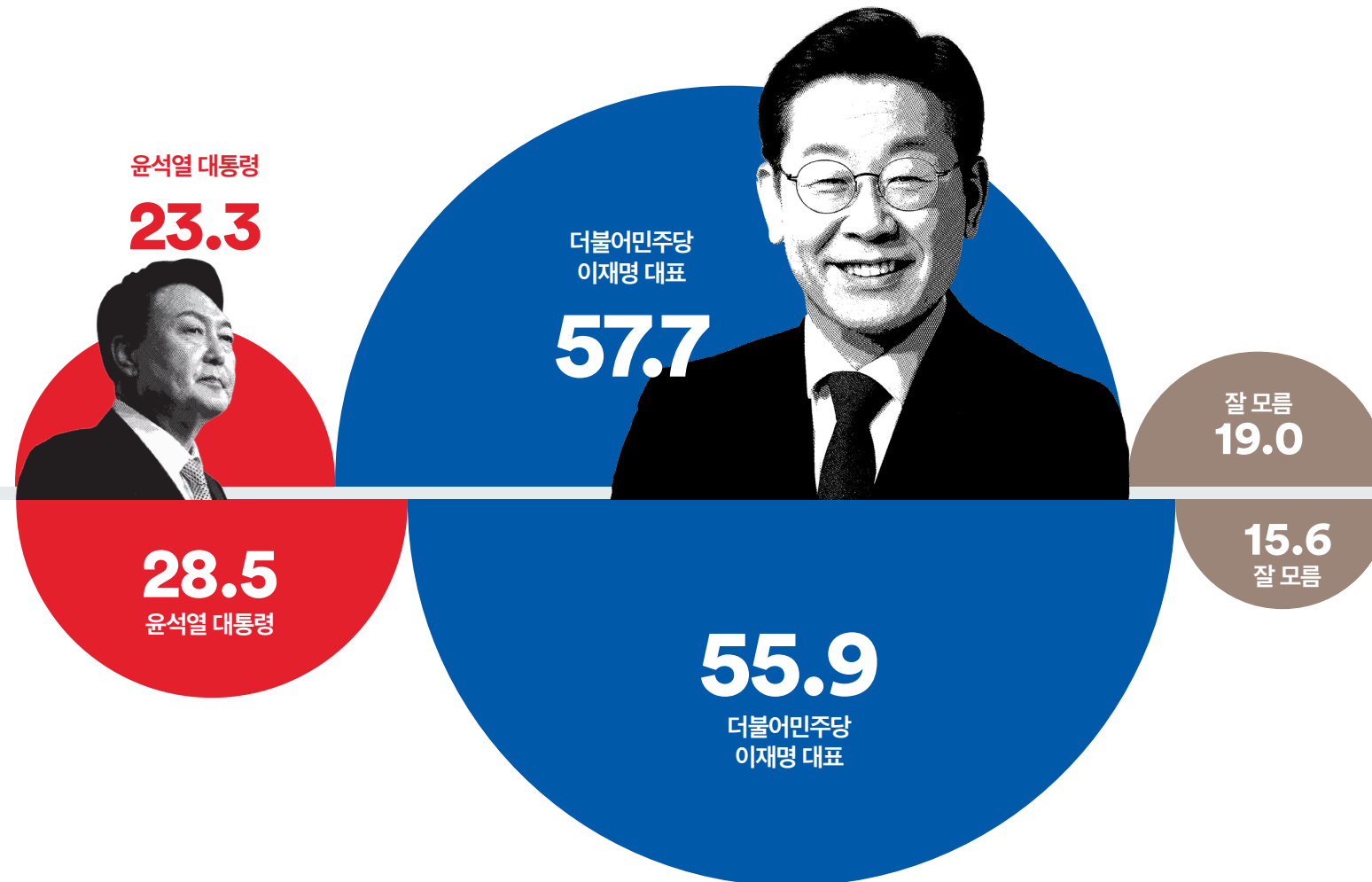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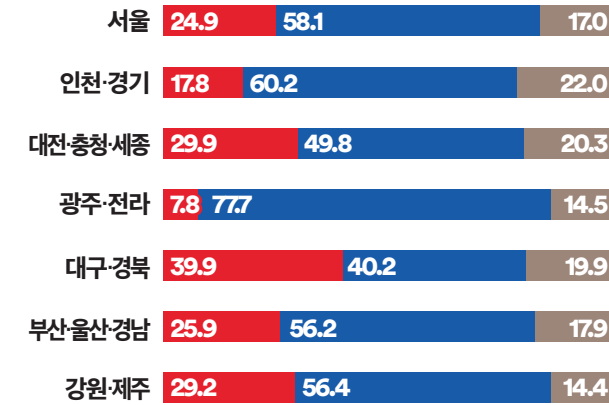
Q. 이번 영수회담에서 다음 중 누가 본인의 역할을 더 잘 했다고 보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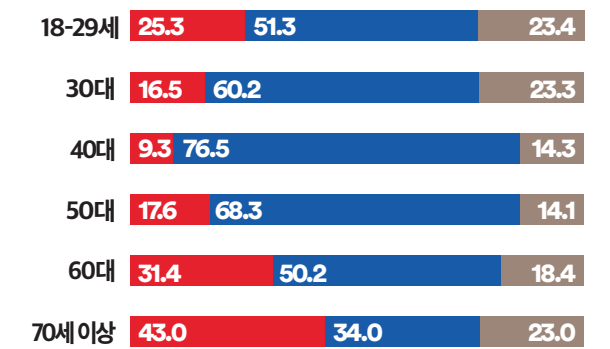


영수회담에서 본인 역할을 더 잘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두 조사의 응답자 절반 이상은 '이재명 대표가 더 본인 역할을 잘했다'고 응답(격차: CATI 34.4%p, ARS 27.4%p)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 대표'란 응답이 앞섰
진보층, 중도층 및 50대 이하 연령층(CATI는 60대 포함)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는 응답이 우세
70세 이상과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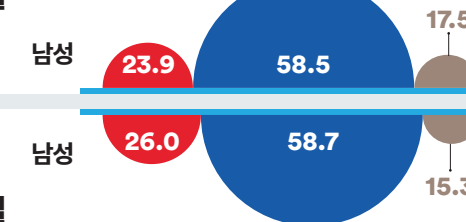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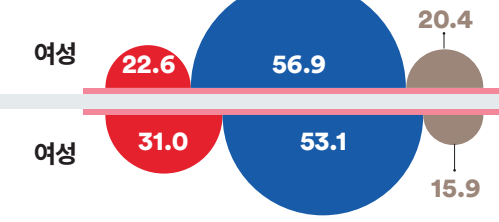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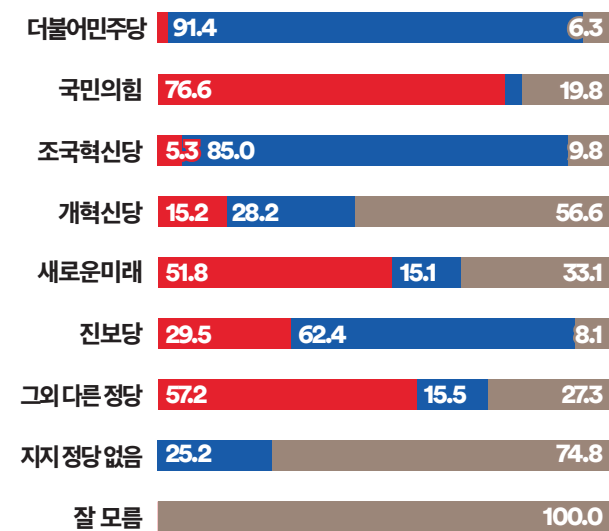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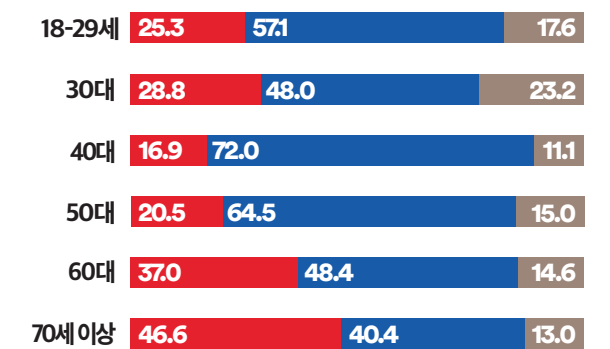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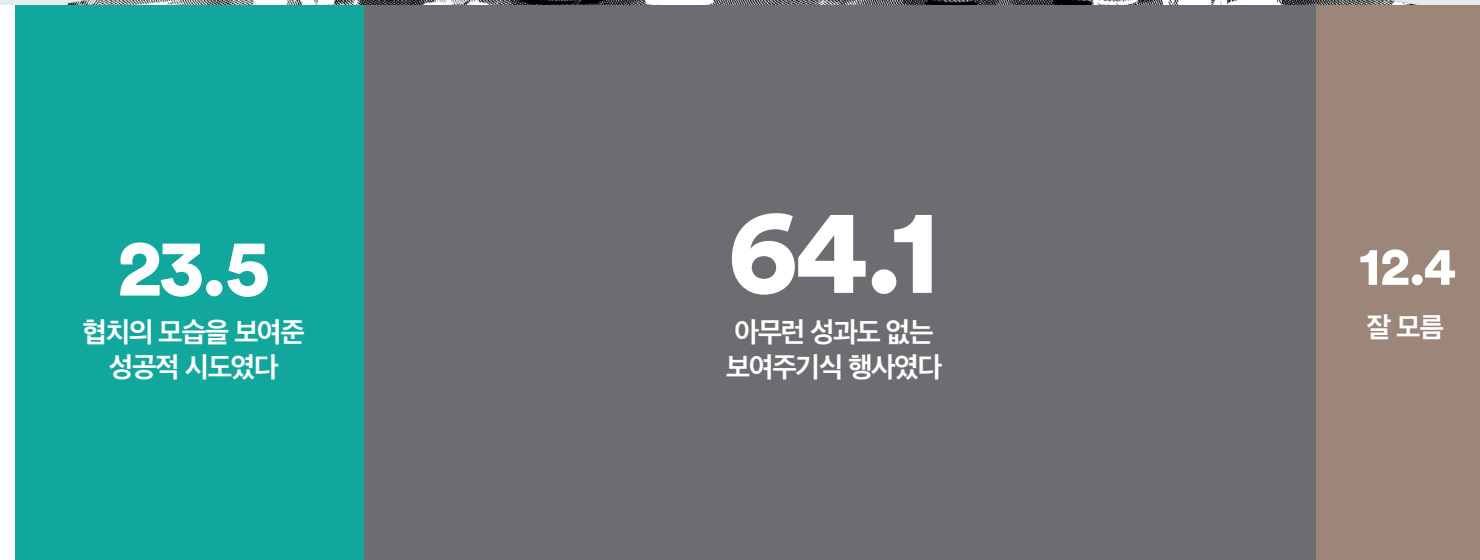
■ 윤석열 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잘 모름

Q.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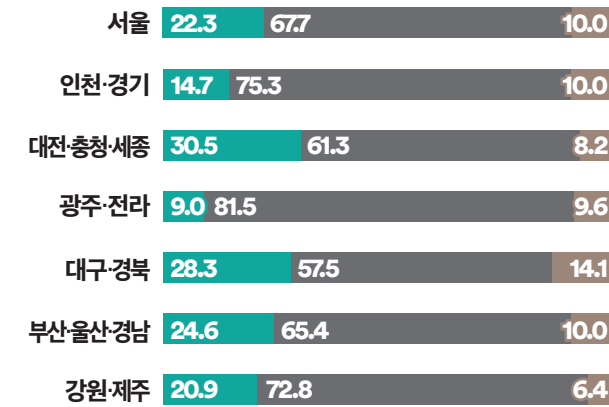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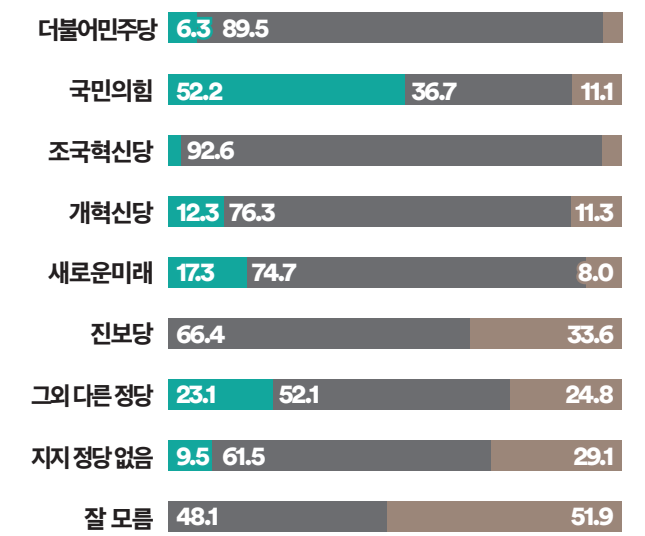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성공적이라 자평한 것과 관련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아무런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고 응답(격차: CATI 49.4%p, ARS 40.6%p)
모든 권역, 60대 이하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보여주기식 행사'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0%전후의 응답자가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CATI 52.2%, ARS 56.8%가 '성공적 시도'였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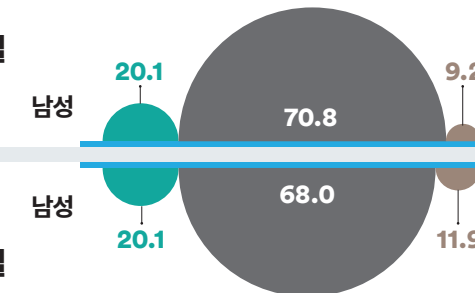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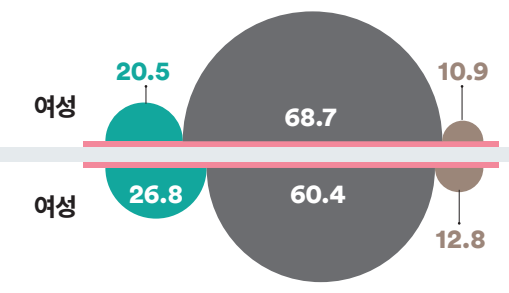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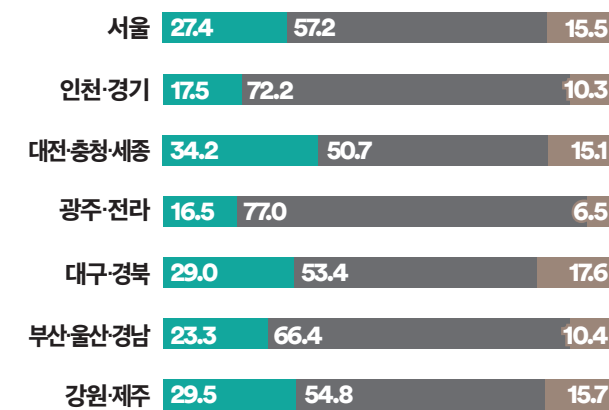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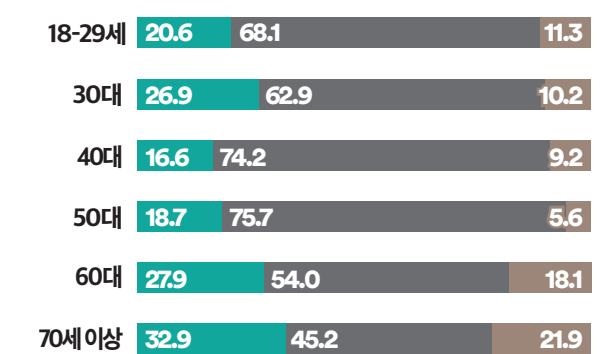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합치의 모습을 보여준 성공적 시도였다 아무런 성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였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5_02
